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춘성 군수, 기재부 방문해 현안사업 건의·사업 필요성 피력

전춘성 진안군수가 국가예산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전 군수는 15일 기재부를 방문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전통자원 복원사업, ▲제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 현안사업 건의와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곤충 사육농가 및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유통판매는 농가별 직접 판매가 대부분이어서 농가소득 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곤충 사육농가가 집중된 진안에 공동 집하장 및 공동가공센터를 설치해 일괄수매·공동가공유통을 통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방안을 기획했고, 농진청·전라북도 및 농식품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다.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약용작물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약용작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홍삼연구소인 진안홍삼연구소, 홍삼·한방특구 기반을 활용한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농업소득분야 대표 지역균형 뉴딜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15일 기재부를 방문해 현안사업 건의와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통자원 복원사업은 어업공동체 주도로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보유한 토속어종을 발굴하고, 토속어종과 지역 생태환경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원조성 계획을 마련해 내수면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어촌지역의 소득창출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국도 26호선인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은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개설된 노선으로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보류제 구간에 대하여 터널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예산부족으로 대절토,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

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중인 기재부 일괄 예타 사업 통과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계획에 최종 반영시켜 반드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과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그리고 전통자원 복원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군민은 물론 도로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개량(터널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백신접종자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진안군, 전북 최초 혜택... 국민체육센터 80%·골프연습장 50%

진안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북 최초 혜택인 접종자에게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일상회복 지원 방안으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로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켜 조기 집단면역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 발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용료 할인은 국민체육센터(체력단련장·수영장)와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진안군민으로 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말까지다.

할인율은 국민체육센터 80%, 골프연습장은 50%다. 접종 완료자는 수영과 골프 강습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할인율이 적용되면 1일 요금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성인요금은 2,000원~400원, 수영장은 3,000원~600원, 골프연습장은 타석 1만원~6,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종이증명서는 접종센터나 접종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는 9월말까지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한 시적으로 적용하고 예방접종 상황과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여부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빠른 예방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돼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민원사무 원스톱 사전심사청구제 호응

무주군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처리비용 부담이 크고 여러 부서 및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통보해 주는 것으로,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민원팀에서는 관련 민원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검토·의뢰하게 된다. 이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처리(접수 2~5일 이내)하게 되며 결과는 처리 부서에서 민원인과 민원봉사과로 통보한다.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은 가족복지 설치와 전기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19건으로 군은 지난 2003년도부터 총 83건을 해결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진안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화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시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21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 기본 재산세 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환급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실 운영

종합대책 수립·재난 발생 시 부서·유관기관 협력 대응

무주군이 여름철 자연재난 집중관리에 나선다. 오는 8월 30일까지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에 집중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각 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호우와 태풍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상황 총괄)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시설응급복구부터 긴급생활지원, 자원봉사, 재난현장 환경정비, 교통, 의료·방역, 긴급통신 등을 담당하며 군부대 등 기관·사회단체에서는 방재인력 및 시설점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재난방재팀 최성용 팀장은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와 유

관기관에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라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이 중요한 만큼 관내 시설 사전 안전점검과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난 집중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과 시스템을 가동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무주를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 지원

장수군은 오미자 재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오미자 제조·가공업체 운영지원을 위해 '2021년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 지원사업은 오미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식품기

업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00만원(보조 80%, 자부담 20%)을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미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최종 목표로 군내 생산 오미자 100%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

으로 공모를 진행·완료했으며, 최종 청정장수오미자영농조합법인(대표 박순도)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보조사업을 통해 청정장수오미자영농조합법인은 오미자청 등 제품을 네이버쇼핑, 쿠팡, 카카오 등 7개 온라인쇼핑몰과 다음, 네이버, 구글 3개 검색엔진을 통해 홍보·판매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277가구 신규 대상자 책정

무주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7가구를 신규 대상자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

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이고,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